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4호 [주제 제25753호] 주제 106(2017)년 9월 1일 (금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 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 꾸리기 쪽 친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장을 보내시였다.

삼지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욱 훌륭히 꾸밀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백두산영웅청년들격에게도 국지도원들은 들을들은 전우장에서 맡은 대상전설을 위한 전투적과 치화를 확신식으로 하면서 둘격대원들의 생활에 드거운 정을 기울였다.

만수대 창작사 미술가 김철수는 혁명의 성지에 친절한 자속을 세겨갈 일념하고 풍격대에 한원하여 삼지연군을 전진시키기 위한 두정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지원사업에도 잘 찾았다.

지난 기간 백두산원출원인들의 평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바쳐온 혁명과 한원하여 삼지연군을 전진시키기 위한 두정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지원사업에도 잘 찾았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기전설

파 최원발전소 건설 지원사업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온 영광을 지닌 철도성 산하단위 무연 김명옥은 오늘도 면담없이 혁명의 성지에 순결한 향성을 바쳐가고 있다.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온 당의 밀을 올 심장길이 간직하고 사회와 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윤성구역내 훈장리부로동자 강정원은 삼지연군 꾸리기도 성심성의로 지원하여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다.

공업출판사 도서원 김명순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을 풍물히 꾸려온 혁명의 성지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충성으로 보답하고 대상전설에서 편연 혁신을 창조하는 데 힘썼다.

김일성경찰기금위원회 흥연원 백운미는 삼지연지구에서부터 로동당면세소리, 사회주의면세소리가 떠 놓이 풍물지기에게 할 때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길이 새기고 공사를 듣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대외경제성 조일범은 풀꽃은 총사장에 어려운 철도나 찾아온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꾸미기 위해 떨어져나온 둘격대원들을 몸집 막으로 도와주었다.

기상에 국립사용자연리를 아끼고 내세워온 당시의 사랑과 온덕에 충성으로 보답하고 대상전설 산하단위로동자 김경희는 온 가족의 지성이 깃든 지원물을 드려 보내주었다.

국가우호발행국 기자 김학명은 배수단장에 대한 장군님의 고향을 풍물히 꾸려온 혁명의 성지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충성으로 보답하고 대상전설에서 편연 혁신을 창조하는 데 힘썼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보내신 감사를 드리며 혁명속에 받아온은 근로자들은 김정일국주주의 소중히 간직하고 혁명의 성지를 더 풍물히 꾸려기 위한 두정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 성새

선군집에 즐용하여 여러 나라 언론들이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 『선군의 힘』, 『평화의 수호자』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이민의 일나통신은 8월 20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1990년 8월 25일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체 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주율을 세우시였다.

하던데 이 현지지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씨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오늘의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8월 16일과 25일 각각 57회 되는 날이다.

더우기 8월 25일의 현지지도가 그이제 정치가로서의 광활한 활동을 시작하시기 때 이전에 전 행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군사가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인민 군대를 핵심으로, 주역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선민적 사회주의건설

을 할길에 다그쳐나가시려는 것이 김정일각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였다. 바로 이 신념과 의지로 김정일각하께서는 수십 성상에 걸친 선군령도의 길을 뛰엄없었다.

이민의 일나통신은 8월 20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1990년 8월 25일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체 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주율을 세우시였다.

이렇게 좋고 볼 때 8월 25일 선군집은 자주권수호의 역사, 평화수호의 의지가 담긴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로씨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오늘의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8월 16일과 25일 각각 57회 되는 날이다.

더우기 8월 25일의 현지지도가 그이제 정치가로서의 광활한 활동을 시작하시기 때 이전에 전 행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군사가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인민 군대를 핵심으로, 주역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선민적 사회주의건설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이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명도밑에 한 사람같이 떨쳐들어나 전쟁을 승리로 결승하였다.

3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조선인민은 흥대의 키운 힘을 빼어세기였다.

최고령도부 작전대 결에서 김일성주석의 힘을 한 명군을

용인히 서며 상장하 신김정일각하에서는 198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

경수체 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

령도의 첫 자주율을 세우시였다.

선군의 기치밑에 조선은 놀라운 기적들을 창조하여 세계를 경

관시켰으며 블록의 사회주의 성세로, 굳건히 다졌다. 이 날 조선인민은 당과 수령을 믿고 따르면 블록에서 떠나는 듯은 한 배심을 지니고 선군의 길을 따라 떠나갈 것이다.

오늘도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승리만을 맹비하고 있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명도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백두산 기슭에 나래치는 총공격전의 기상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216사단

룡남산의 맹세와 더불어 태양의 나라 주체조선은 영원무궁하리라

역사의 선언 - 조선아 너를 빛내리!

주제 49(1960)년 9월 1일 아침, 세월의 흐름 속에 메사로이 밟아온 내 조국의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 아침에 김일성민족의 영원무궁한 승리와 영광을 부르는 역사의 희성이 울려퍼질줄 아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수수한 학생복을 입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풍남산마루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한자속도 한자속...

새 기사는 그 자유마다에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바탕이 어려고 새사여 풀어버린지는 그이의 심중이 실려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내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이곳에 오시았던 못 잊을 그날의 추억, 수령님을 잘 들어아울러 한시민 어머님의 절절한 당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담아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민방에 펼치 실적의 의지...

이윽고 산미루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천리강산을 한품에 안아보시는가 산할일리에 시선을 주신께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다가 걱정을 담아 교시하였다.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어 수령님의 위엄을 대를 이어 담들이나가는 것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살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이 행성에 유일무이한 정치사상강국, 그 어떤 대지도 감히 친트립수 없는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청춘의 혁력에 넘친립 있고 전도양양한 청년강국으로 불체의 위력을 펼치고 있다.

이 금지 높은 현실을 새겨볼수록 수십년전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실 때에 한 조부와 사명감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이 가슴을 울리고 역사의 광풍을 해치시며 풍남산의 맹세를 빛나게 실현하여 오신 그 강인당대한 배짱과 실천력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특별한 철학과 실력, 무한한 원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역세계에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로 해치신 선군의 길이 그 단단한 사업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심장을 세차게 두드린다.

비슷한 기억력과 분석력, 예리한 안목과 끝없는 성격으로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종합체계화하시며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강행을 선포하신 위대한 장군님.

주체의 가치를 높이 추켜드신 그이의 명도의 손길아래 우리 당은 주선을 맹세해 새우고 주체의 사상체계를 정지 히 확립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사업작법이 당시사업에 철저히 구현되게 되었다.

혁명과 진실의 모든 불야에 대한 해박한 사건을 지나시고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거창한 과제들을 완벽하게 물어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상상봉에 우뚝 솟구쳐오르고 이 땅 위에는 세계가 경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부신 기적과 승리들이 끊없이 절려졌기 때문이다.

경애는 는 죄 고 영 도 자 김정운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학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발婢어 당파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살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이 행성에 유일무이한 정치사상강국, 그 어떤 대지도 감히 친트립수 없는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청춘의 혁력에 넘친립 있고 전도양양한 청년강국으로 불체의 위력을 펼치고 있다.

이 금지 높은 현실을 새겨볼수록 수십년전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실 때에 한 조부와 사명감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이 가슴을 울리고 역사의 광풍을 해치시며 풍남산의 맹세를 빛나게 실현하여 오신 그 강인당대한 배짱과 실천력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들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조선을 빛내이시기 위하여 절고걸으면 김은 열미이며 바친신 심혈과 헌신을 또 알리미연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경단의 의지로 해치신 선군의 길이 그 단단한 사업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고난을 겪더니 그것이 아니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 존망의 갈림길에 놓이었던 지난 고난의 행군, 장행군시키 풍남산의 성

슬로운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며 선군의 보검을 뜨 놓이 추켜드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서 일군을 통해 하신 교시가 천만의 가슴에 드겁게 새겨져있다.

나도 인간인 것만큼 힘을 들고 잡이 그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행처럼 허락할 수도 없고 미운놓고 잡을 할 수도 없는 몸입니다. 나는 일찌기 수령님의 위엄을 발휘하여 사령하는 내 조국, 우리 조선을 세우며 빛내이면서 제기하는 거창한 과제들을 완벽하게 물어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상상봉에 우뚝 솟구쳐오르고 이 땅 위에는 세계가 경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부신 기적과 승리들이 끊없이 절려졌기 때문이다.

경애는 는 죄 고 영 도 자 김정운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학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발婢어 당파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살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이 행성에 유일무이한 정치사상강국, 그 어떤 대지도 감히 친트립수 없는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청춘의 혁력에 넘친립 있고 전도양양한 청년강국으로 불체의 위력을 펼치고 있다.

이 금지 높은 현실을 새겨볼수록 수십년전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실 때에 한 조부와 사명감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이 가슴을 울리고 역사의 광풍을 해치시며 풍남산의 맹세를 빛나게 실현하여 오신 그 강인당대한 배짱과 실천력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들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조선을 빛내이시기 위하여 절고걸으면 김은 열미이며 바친신 심혈과 헌신을 또 알리미연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경단의 의지로 해치신 선군의 길이 그 단단한 사업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고난을 겪더니 그것이 아니

라 최강국의 높이에로 치달아올라야 한다는 백두산장군의 위대한 신념과 고난의 행군, 장행군시키 풍남산의 성

슬로운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며 선군의 보검을 뜨 놓이 추켜드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서 일군을 통해 하신 교시가 천만의 가슴에 드겁게 새겨져있다.

나도 인간인 것만큼 힘을 들고 잡이 그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행처럼 허락할 수도 없고 미운놓고 잡을 할 수도 없는 몸입니다. 나는 일찌기 수령님의 위엄을 발휘하여 사령하는 내 조국, 우리 조선을 세우며 빛내이면서 제기하는 거창한 과제들을 완벽하게 물어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상상봉에 우뚝 솟구쳐오르고 이 땅 위에는 세계가 경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부신 기적과 승리들이 끊없이 절려졌기 때문이다.

경애는 는 죄 고 영 도 자 김정운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학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발婢어 당파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살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이 행성에 유일무이한 정치사상강국, 그 어떤 대지도 감히 친트립수 없는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청춘의 혁력에 넘친립 있고 전도양양한 청년강국으로 불체의 위력을 펼치고 있다.

이 금지 높은 현실을 새겨볼수록 수십년전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실 때에 한 조부와 사명감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이 가슴을 울리고 역사의 광풍을 해치시며 풍남산의 맹세를 빛나게 실현하여 오신 그 강인당대한 배짱과 실천력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들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조선을 빛내이시기 위하여 절고걸으면 김은 열미이며 바친신 심혈과 헌신을 또 알리미연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경단의 의지로 해치신 선군의 길이 그 단단한 사업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고난을 겪더니 그것이 아니

어온동!

그 이름만 불리도 생스러운 역사의 속성이 심장속에 파도처럼 흐르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균분과 대불이 흥미로운 맹세를 풀어주는 어온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치사업 방법을 펼쳤던 곳이다.

시원속에서도 더욱 더 철통같이 다진 우리들의 일심단결, 인공지구와 성체 및 밭자국, 해보유국, 새 세기 산업혁명...

맹세와 실천을 일치시킨 최세의 선령평장, 여기에 우리 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상이 있고 만민을 매혹시키는 불멸한 공적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서 일군을 통해 하신 교시가 천만의 가슴에 드겁게 새겨져있다.

나도 인간인 것만큼 힘을 들고 잡이 그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행처럼 허락할 수도 없고 미운놓고 잡을 할 수도 없는 몸입니다. 나는 일찌기 수령님의 위엄을 발휘하여 사령하는 내 조국, 우리 조선을 세우며 빛내이면서 제기하는 거창한 과제들을 완벽하게 물어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상상봉에 우뚝 솟구쳐오르고 이 땅 위에는 세계가 경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부신 기적과 승리들이 끊없이 절려졌기 때문이다.

경애는 는 죄 고 영 도 자 김정운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학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발婢어 당파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살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이 행성에 유일무이한 정치사상강국, 그 어떤 대지도 감히 친트립수 없는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청춘의 혁력에 넘친립 있고 전도양양한 청년강국으로 불체의 위력을 펼치고 있다.

이 금지 높은 현실을 새겨볼수록 수십년전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실 때에 한 조부와 사명감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이 가슴을 울리고 역사의 광풍을 해치시며 풍남산의 맹세를 빛나게 실현하여 오신 그 강인당대한 배짱과 실천력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들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조선을 빛내이시기 위하여 절고걸으면 김은 열미이며 바친신 심혈과 헌신을 또 알리미연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경단의 의지로 해치신 선군의 길이 그 단단한 사업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고난을 겪더니 그것이 아니

훈련을 하는 뒷이 잘 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실태를 깨닫고 보고자 했지만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것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성도 높이고 사상사업도 해야 하지만 민성에서는 자기의 특색 있는 사업방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성에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파일을 제기하였다.

『정치사업의 기본목적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정치사업의 결과는 혁명실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주제 51(1962)년 8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 큰 소나무에 장작방에서 대대민성사업을 맡아보았던 학생들과 허름없이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민성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고 물으셨다.

그들의 실정을 해아리신 뒷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풀겠는가, 땅도는 간단하다고 하면서 대대민성사업에서 대대민성사업을 맡아보았던 학생들과 허름없이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민성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고 물으셨다.

역사는 풍남산의 위대한 맹세를 지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힘을 초월처럼 토우시며 우리 조국을 존우하고 강위한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수령님께서는 생활을 김정일시대에는 더욱 더 높아지고 힘을 더하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듯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민에게 헌신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헌신을 높여주시고 헌신을 풀어놓고자 했던

언제까지 파거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겠는가

우리 공화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솟구쳐 올라섬으로써 조선반도를 포함한 통일아시아역과 세계의 평화와 협력적지향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 불가항력적이며 불가역적인 흐름은 대체로 굳어지고 있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인정하기가 아무리 피폐더라도 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불편한 결론에 다가서고 있다는 소리들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울려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조미대결이 거대한 구조적변화를 보이고 있다. 핵을 유도한 핵선반과 미사시에서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본토를 치명적인 유일한 방도는 통행하게도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걸림에 없다. …

세계 정치가 속한 변화를 알리는 이어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아직도 파거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눈감한 사람들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남조선당국이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을 안된다. 북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북이 주가족으로 핵개발을 중단하면 대화할수 있다.《북핵문제》의 역사는 세계가 함께 갈 때《문제해결의 단초》로 열렸음을 보여주었다.

불이 보면 분명 조선당내에 도대체 뜻풀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 처음부터 미지막까지 문제의 대상이 미국삼전에게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한우를

어려운 형편이다. 차가당자, 이불배반, 자제모순, 황당무개 등등의 언어들이 우후죽순처럼 뇌리에 머물 수 있다.

차라리 물속에서 물을 짜겠다고 하던지, 미론나루에서 물을 짜겠다고 한다면 어이없는 웃음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미론나루에서 《심각한 어조》로 한 말이기에 풍족으로서 몇 미리 해 주는 것이 그들의 혼란된 의식을 바로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트럼프트리를 좋아하면서 《전쟁불사론》의 파괴적위험성을 적갈하

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된다고 확정을 명예 미국에 대고 도발한 것으로서 그만하면 《대단한》 언행이라 할 수 있겠다. 집권권 미 국에 대고 《아니!》라고 할

때에도 불구하고 《제양의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다를바

없이 않는 것이다.

조선반도유사시 칠마전정수행을 직접 담당한 미국의 3대 군부우두머리를 까지 제 셈에 들어붙어 북침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뮤장난판을 빌려놓고 성세를 쪽방게선으로 더욱 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원연스럽게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요, 《방어적성격의 네재적인 훈련》이요, 군사자진장을 고조시키는 의도가 전혀 없소 하고 변명하는가 하면 도

이제 제발자원으로 풍족을 향해 《도발》을 울리고 봄에 폭에 대비해 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껏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북의 핵과 미싸일》이라던 판에 막은 말이 거짓이었으며 저들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의 원인제공자와 미국 국방이라는 힘을 보증하고 있었던 것을 부지불식간에 교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처음부터 미지막까지 문제의 대상이 미국삼전에게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한우를

여당초 전시작전지휘권마저 미국에 내맡기고 상전의 승인없이 충만 한발도 날뛸 수 없는 심지하수민의 처지에 있는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힘으로 활용해야 있을

때다. 그런즉 남조선당국이 자기의 처지에서 행정을 위해 《미역하나마 기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국의 전쟁위파에 비난을 그만 뿐이었을뿐이다.

그리고 남조선당국이 미드는 《제재와 대화의 평화》를 위해 《5·24조치》와 같은 제재방통을 부활으로써 좋게 나가면 6·15시대가 열어

되고 그만 놓고 봄에 대체방통을 대안으로 대화를 재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미드는 《제재와 대화의 평화》를 통해 어찌나 많은 주장이다.

제재반도유사시 칠마전정수행을 직접 담당한 미국의 3대 군부우두머리를 까지 제 셈에 들어붙어 북침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뮤장난판을 빌려놓고 성세를 쪽방게선으로 더욱 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원연스럽게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요, 《방어적성격의 네재적인 훈련》이요, 군사자진장을 고조시키는 의도가 전혀 없소 하고 변명하는가 하면 도

이제 제발자원으로 풍족을 향해 《도발》을 울리고 봄에 폭에 대비해 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껏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북의 핵과 미싸일》이라던 판에 막은 말이 거짓이었으며 저들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의 원인제공자와 미국 국방이라는 힘을 보증하고 있었던 것을 부지불식간에 교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처음부터 미지막까지 문제의 대상이 미국삼전에게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한우를

더 옥 기가 막힌 것은 북핵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 주었다.》고 해석되었으므로서 분명 기억장치에도 무슨 혼란이 생겼겠지만 틀림없다.

1998년 우리에게 인공지구위성 《황령성-1호》가 날아오르고 우리에게 마강한 선군정치의 힘에 의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통해 《3·3·3봉파일》이니 워너는 옷을 벗어나 아버지처럼 6·15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남조선당국이 미드는 《제재와 대화의 평화》를 위해 《5·24조치》와 같은 제재방통을 부활으로써 좋게 나가면 6·15시대가 열어

되고 그만 놓고 봄에 대체방통을 대안으로 대화를 재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미드는 《제재와 대화의 평화》를 통해 어찌나 많은 주장이다.

제재반도유사시 칠마전정수행을 직접 담당한 미국의 3대 군부우두머리를 까지 제 셈에 들어붙어 북침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뮤장난판을 빌려놓고 성세를 쪽방게선으로 더욱 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원연스럽게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요, 《방어적성격의 네재적인 훈련》이요, 군사자진장을 고조시키는 의도가 전혀 없소 하고 변명하는가 하면 도

이제 제발자원으로 풍족을 향해 《도발》을 울리고 봄에 폭에 대비해 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껏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북의 핵과 미싸일》이라던 판에 막은 말이 거짓이었으며 저들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의 원인제공자와 미국 국방이라는 힘을 보증하고 있었던 것을 부지불식간에 교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면 처음부터 미지막까지 문제의 대상이 미국삼전에게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한우를

사자인 우리에게 북미연회합의 힘을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심토하지 않았는가.

대회의 실천여부는 우리가 아니라 남조선당국에 달려있다.

정정한 대회가 실현되려면 남조선당국이 미국상전의 손탁과 대회장책, 운차 불순한 망상 등의 글에 풀려나야겠지만 지금처럼 돌아다니는 언제 문이 열리겠는지도 부지불식간에 가지 않는다.

북핵현상의 입구를 《핵통길》로, 출구를 《완전한 북미연회》로 정했다고 하는

비현실적인 《입출구문》을 내밀며 세인의 웃음을 보아내고 지금 우리의 핵과 로케트가 얼마나 멀리 앞으로 나갔는지를 아파 손을 얹고 빠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미국내에서 조차 《북미연회》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고지속에 사는》 옆 날사람으로 위급되고 북의 범보주국인 정준자를 이 현실을 보는 인목과 미래를 내다보는 애인 있는 사람들은 운동장과 지구를 남조선당국이 세상과 달리고 이후 물이나 두드러지다가는 지옥물방에 멀리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아무런 명분도 능력도 담보도 없이 주제넘게 조미사이에 끼여들어 우리에게 핵문제를 다뤄버려다가는 손만 뻗으니니 차라리 저 하늘의 유희를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손을 내밀자고 해도 팔이 끝이 끝이 헤어져 환경을 나누면 강아지도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 누구를 압박하지 전에 피뢰를 자신부여가 《한미동맹》과 유관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손을 내밀자고 해도 팔이 끝이 끝이 헤어져 환경을 나누면 강아지도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재와 대회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불로써

미국과 대화를 통해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재와 대회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불로써

미국과 대화를 통해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재와 대회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불로써

미국과 대화를 통해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재와 대회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불로써

미국과 대화를 통해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재와 대회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불로써

미국과 대화를 통해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재와 대회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불로써

미국과 대화를 통해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재와 대회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불로써

미국과 대화를 통해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재와 대회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불로써

미국과 대화를 통해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재와 대회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불로써

미국과 대화를 통해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재와 대회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불로써

미국과 대화를 통해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재와 대회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불로써

미국과 대화를 통해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처럼 열망하는》 대회에 실제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제재와 대회는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불로써

미국과 대화를 통해 《제재결의》의 쇠사락에서 헤어져 《핵포기》를 향해 풍세에 헤어는 엇인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제재와 대회를 《핵포기》를 이용해내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반공화국 대결 압박 소동은 부질없는 망동이다

미국의 지정학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브레진스키는 1990년대에 내놓은 저작의 책 『큰 장기판』에서 몇몇 대국들을 지정학적 장기 판도로 보아하면서 그들에 의해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정치지도가 그려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지정학적 장기군들에는 우리 주변국들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 있다. 대국들이 벌리는 지정학적 대결에서 조선이 아주 능란하고 세련된 장기군이 되어 딩치한 미국을 상대로 격렬한 싸움을 벌리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정치지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우리 주변나라들의 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국들이 벌리는 지정학적 대결에서 조선이 아주 능란하고 세련된 장기군이 되어 딩치한 미국을 상대로 격렬한 싸움을 벌리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정치지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우리 주변나라들의 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국들이 벌리는 지정학적 대결에서 조선이 아주 능란하고 세련된 장기군이 되어 딩치한 미국을 상대로 격렬한 싸움을 벌리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정치지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 미국은 세계 유일 초대국을 살피는 모든 수단들을 우리 공화국과의 대결에 충전 중, 충돌시키고 있다. 핵전략사들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파도식으로 펼쳐지는 미국과의 전쟁 양상을 예상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위험을 강조하는 한편 세계시장에 미치는 경제적과 국제 무대에서 차지하는 평화적 위기를 이용해 세제암비의 포위망을 확대하고 있다.

모두 알 줄 아는 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이 두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단행한 대북간단도로 텔레그램의 시험발사를 걸고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를 동원하여 국가무도한 반공화국세계경쟁의 조직해낸 것이다. 초기에는 그 세계경쟁의 조직화를 드러나면서 우리 주변국들은 미국이 서둘러 대북 강도높은 세제암비의 음악을 보이자 기겁하여 체면도 자존심도 더 베어버리고 두손을 풀고 말았다. 이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장기판에서 미국과 승부를 겨루는

지정학적 장기군이 아니라 조선을 압살해 보려고 죄눈이 되어 날뛰는 오만무례한 혼란자들의 손풀을 끊어나가는 장기쪽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을 폭장시켰다고 유효화하였다. 미국은 제재 압박과 함께 군사적 위협 공급의 도수를 국도로 높여며 고고 퍼터리 가이더링과 함께 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도발적 행동들은 미국을 더욱 수세에 몰아넣는 것처럼 되풀이 되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팜도로 위협 사격방

을 불안과 공포로 빠져들었다. 우리 공화국이 편수 장훈을 불러내자 미국은 대우며 편에 빠져 전전공공하고 있다. 남조선 강군은 저들의 군사기지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느라고 여념이 없다. 팜도, 허위의 등지에서는 유사시 행동준칙과 관련한 소책자들이 달간, 바로 되고 섭주들에게 그 책을 허여 볼 것을 권유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팜도에서는 라디오 방송국들의 실수로 비상사태 정보가 놀라 주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빠뜨렸다. 미국본토에서도 워싱턴과 뉴욕이 핵공격을 받을 때에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한지도가 공개되어 미국인들의 불안과 공포를 증대시키고 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저축했던 돈을 떨어내며 해방공포호를 경쟁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우선 살고부터 보자는 삶이다. 1년에 평균 10억원을 팜도로 위협 사격방을 했던 일은 미국은 대국들과의 지정학적 대결을 벌리면서 본토는 물론이고 평양 양상에 있는 자고마한 섬 하나도 위험을 받을 적이 없었다. 팜도가 다른 나라의 공개적인 위협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알 위협에 빠져든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트럼프는 대 통령 자리에 올라앉을 때마다 일상 생활을 품으로 끌고 다닌다. 그가 조선이 대북 간단도로 텔레그램의 시험발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것인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트럼프는 지정학적 대결의 주도권은 어제의 미국이 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대북 간단도로 텔레그램의 시험발사를 거친 후에는 트럼프가 조선의 대북 간단도로 텔레그램의 사거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학위혁파 공급을 했던 유엔은 이제는 미북의 운명의 분초를 뒤집는 고장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어 미국인들이 조선의 대북 간단도로 텔레그램의 사거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국가와의 대결로는 미국본토 단절을 일으킬 수 없다. 미국이 대북 간단도로 텔레그램의 방도를 찾지 못하고 시간을 그냥 허비해보낼 수도 있다. 오히려 우한거리로 물러난다.

미국국민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동양국 보호나, 조선과의 외교관계 단절이나 뛰어나게 부질없는 반공화국 대결 압박소동에 매달릴 것이다. 아니면 세 나라의 운명부의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우리 국가와의 대결로는 미국본토 단절을 일으킬 수 없다. 미국이 대북 간단도로 텔레그램의 방도를 찾지 못하고 시간을 그냥 허비해보낼 수도 있다. 오히려 우한거리로 물러난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전쟁책임을 진정히 밟아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무장을 지지하는 뿐이다.

2017년 배두산 위원회 청송대회 국제 준비 위원회 위원장인 청년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은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다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 축전 참가자들의 반향

위대한 선군의 기치 높이 반제 반미 대결 전에서 백승을 뱉쳐온 자랑찬 승리전통을 반대해 하게 멀어져고 있다. 신실한 수도 없다.

미국은 정전 협정을 결실태해야 한다. 그

정전 협정은 본적으로 달라진 우리 나라의 전략적지위, 지정학적 영향력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해야 한다. 미국이 다른 대국들의 심각한 갈등, 대결 문제를 뒤로 내려놓고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키우며 세계적인 혼란으로 내세운 것은 주체조선이 세계적인 혼란으로 내세운 것은 주체조선이 인정한 것이다.

변화로 형세는 협상에 조선의 혁역

제례문제가 아니라 미국본토의 안전보장 문제가 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얼마전 칠레를 행차한 미국부대 통영이 칠레와 브라질, 베트남, 베트남에 우리 나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을 강به어 나섰다. 미국의 고위인물들은 라틴아메리카나 다른 나라들에 도내지 않았다.

조선인민은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작을 열어놓은 영웅적인 인민이다.

하나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 서 교훈을 찾을 대신 세계계권을

위하는 암방을 버리지 않고 세계계권의 기회를 놓아버리고 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조선인민의 편에 서 있었을 것이다.

평판을 통하여 미국이 아말로 세계계권의 원쑤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2017년

미국은 조선에 감히 범부를 염두 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조선인민의 편에 서 있었을 것이다.

평판을 통하여 미국이 아말로 세계계권의 원쑤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2017년

미국은 조선에 감히 범부를 염두 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전쟁책임을 진정히 밟아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무장을 지지하는 뿐이다.

2017년 배두산 위원회 청송대회 국제 준비 위원회 위원장인 청년

트 자유시 회주의 자당 부위 원장은 미제의 폐방상을 보여 주는 기념판은 후대들이 자기 조국의 전승의 역사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때 후 흡족한 웃어라고 격찬하였다.

2017년 배두산 위원회 청송대회 회장인 자매드 앤서리 파커스란 조선전선협회 카리지지부 회장은 다음과 같이 폭력하였다.

위대한 칠성주석의 타락한 평도가 있어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세계계권 강령을 사랑하면 미국을 따승하고 있다.

지난 조선전쟁 시기 미국은 조선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위대한 주석의 평도 밑에 조선인민은 새가루민 남았던 자기 나라를 흡족하게 변모시켰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세계계권과 반공화국 압박책동이 날을 따라 더욱 악화되면서 조선은 그 끝없는 폭력이다.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께 서 계시여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은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다.

조선반도정세를 치악의 사래로 몰아가는 장본인은 미국이다

우리 나라 상임대표 제네바 군축 회의에서 연설

제네바 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8월 29일 제네바 군축 회의 3기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앞에서 조선반도 대북제재 문제는 미국의 끌임없는 적대 시정책과 협력공급의 성과를 같이 보여주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적대 시정책과 날로 가중되는 우려로 하여금 그에 대처하여 혁명제력을 보유하고 끌임없이 강화해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가 최강의 혁력을 보유한 것은 반제기이상에 걸쳐 극단적인 대조선적 대북제재와 협력공급을 일삼아온 미국의 강점과 전횡으로부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북제재와 협력공급을 통해 미국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조선이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이번에도 우리는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토의하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를 제2회로 개최하여 미국의 반제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지하기 위하여 선택한 정성과 함께 조선반도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이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이번에도 우리는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토의하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를 제2회로 개최하여 미국의 반제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지하기 위하여 선택한 정성과 함께 조선반도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함께 군사적 대결을 펼쳐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책임을 확증하였다.